

2022년 9월 11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시편 Psalm 143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죄악 중에 거하며, 죽임과 파괴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모릅니다. 주여. 절망 중에 있는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써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모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당신의 거룩한 교회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 Jesus Christ and John the Baptist

사도행전 Acts 13:24-25

24.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Before his coming, John had proclaimed a baptism of repentance to all the people of Israel.

25.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And as John was finishing his course, he said: “What do you suppose that I am? I am not he. No, but whose feet I am not worthy to untie.”

세례요한(John the Baptist)은 이사야서(book of Isaiah)와 말라기서(book of Malachi)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했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써 구속 받아 영생에 이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해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에 기뻐해야 합니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 (the voice in the wilderness)로 존재하며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한 세례요한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모델입니다.

24.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Before his coming, John had proclaimed a baptism of repentance to all the people of Israel.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relative)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온 것도 세례요한이 조금 먼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 요단강 가에서 회개를 선포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조금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결혼식에서도 들러리들이 앞장서고 신랑과 신부가 나중에 나오지요.

이런 상식이 성경에도 통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경우,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제물로 묶인 점입니다. 요셉의 경우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부를 증거 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요한 직분들” 이 있습니다. 이들 직분들은 모두 합하여 “메시아의 삼중직” 으로 사역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1. “제사장들” 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는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제사드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기다렸습니다.

2. 왕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의 세상 통치자들과 다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에 의해 추대된 것이 아니라 “기름부음” 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림자로서 보여야 했습니다. 이들을 엄중하게 평가한 “사가들” 은 그 기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3. 그리고 “예언자들” 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언자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이 세례요한 때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종합한 면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인물을 주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아” 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아의 역할을 세례요한이 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아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25.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And as John was finishing his course, he said: “What do you suppose that I am? I am not he. No, but whose feet I am not worthy to untie.”

세례요한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미 “자칭 메시아”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더구나 세례요한은 그 놀라운 거룩함과 헌신으로써 사람들의 의구심을 사기에 거의 충분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As the people were in expectation, and all were questioning in their hearts concerning John, whether he might be the Christ.

누가복음 Luke 3:15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1.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분명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통하여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2.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런 “자기정체성 매김”은 성경의 빛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와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And as John was finishing his course, he said: “What do you suppose that I am? I am not he. No, but whose feet I am not worthy to untie.”

사도행전 Acts 13:25

그 때는 그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였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였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세례요한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마음 속을 꿰뚫고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놓고 요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And this is the testimony of John, when the Jews sent priests and Levites from Jerusalem to ask him, “Who are you?”

요한복음 John 1:19

유대인들이,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다룬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가 누구야?” 보십시오. 이때는 “사역의 초기”였습니다.

이럴 때 요한은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대

He confessed, and did not deny, but confessed, “I am not the Christ.”

요한복음 John 1:20

이어서 대답한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He said, “I am the voice of one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 as the prophet Isaiah said.”

요한복음 John 3:23

말하자면 그는 광야에서 오직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목소리는 사명을 다하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7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신발끈을 풀니까?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요한은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채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처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calling) 복음을 가르치시고 (teaching) 보내셨습니다(sending).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그대로 증거 하라는 사명입니다. 이는 열 두 제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한결같은 사명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열 두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광야의 목소리로 존재하면서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야?” 자기를 드러내야 할 시간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의 회사” 내지 “공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나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흠에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에게서 난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오늘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거하면서 목소리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The next day he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요한복음 John 1:29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세례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왜 사냐건, 웃지요”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의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무슨 목소리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분을 환영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친 무리들처럼요?

그렇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

우리가 지금 그분을 환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거할 땅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절대존의 자리”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치는 목소리여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누구에게나, 그 심장에 대고 외쳐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진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그 생명의 영원하신 이름입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요한처럼,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